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

여론조사꽃 제3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4_04

ARS+CATI

제34차 ARS조사

제19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3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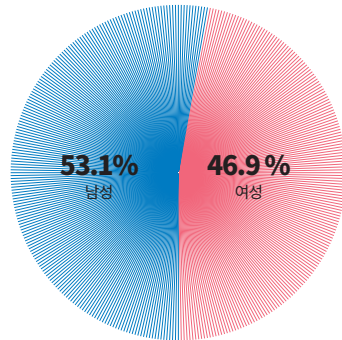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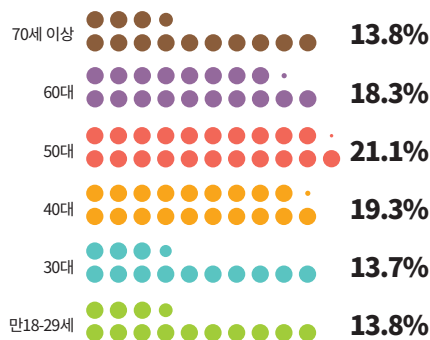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응답률	3.1% [총 통화시도 32,468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21일 ~ 4월 2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533	53.1	498	49.7	0.93
		여성	470	46.9	505	50.3	1.07
연령		만18~29세	138	13.8	166	16.6	1.20
		30대	137	13.7	151	15.1	1.10
		40대	194	19.3	181	18.0	0.93
		50대	212	21.1	196	19.5	0.92
		60대	184	18.3	170	16.9	0.92
		70세 이상	138	13.8	139	13.9	1.01
지역		서울	196	19.5	188	18.7	0.96
		인천·경기	324	32.3	320	31.9	0.99
		대전·세종·충청	96	9.6	105	10.5	1.09
		광주·전라	94	9.4	97	9.7	1.03
		대구·경북	98	9.8	99	9.9	1.01
		부산·울산·경남	150	15.0	150	15.0	1.00
		강원·제주	45	4.5	44	4.4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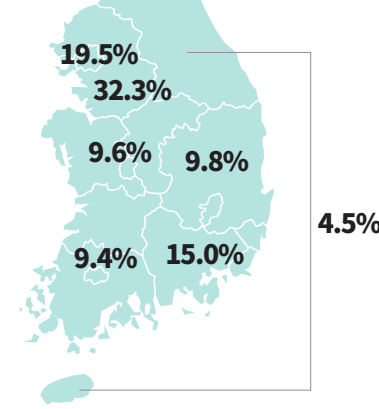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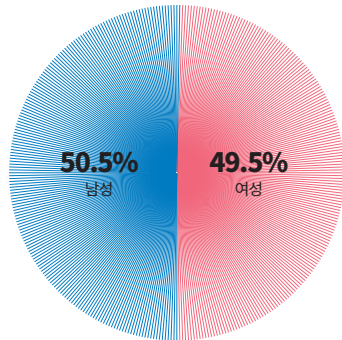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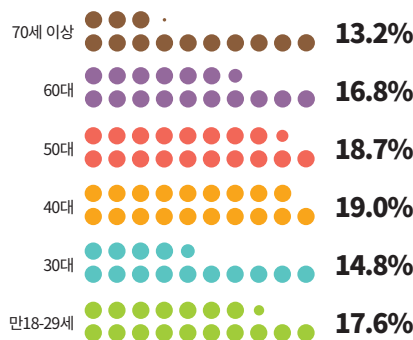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8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7.4% [총 통화시도 5,801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21일 ~ 4월 2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8	100.0%	1,008	100.0%	1.00
성별		남성	509	50.5	500	49.6	0.98
		여성	499	49.5	508	50.4	1.02
연령		만18~29세	177	17.6	166	16.5	0.94
		30대	149	14.8	151	15.0	1.01
		40대	192	19.0	184	18.3	0.96
		50대	188	18.7	196	19.4	1.04
		60대	169	16.8	170	16.9	1.01
		70세 이상	133	13.2	141	14.0	1.06
지역		서울	194	19.2	189	18.8	0.97
		인천·경기	321	31.8	320	31.7	1.00
		대전·세종·충청	104	10.3	107	10.6	1.03
		광주·전라	99	9.8	99	9.8	1.00
		대구·경북	102	10.1	99	9.8	0.97
		부산·울산·경남	146	14.5	150	14.9	1.03
		강원·제주	42	4.2	44	4.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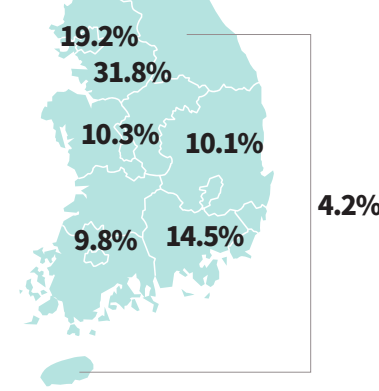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할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호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 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여론조사꽃 제3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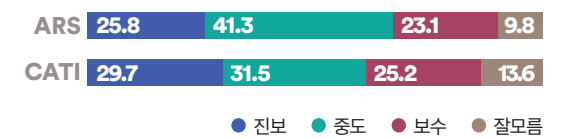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3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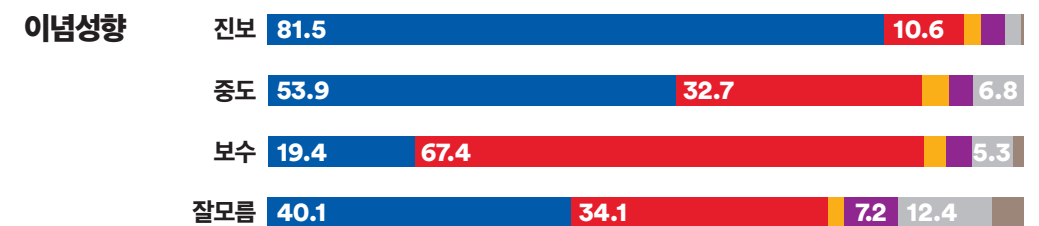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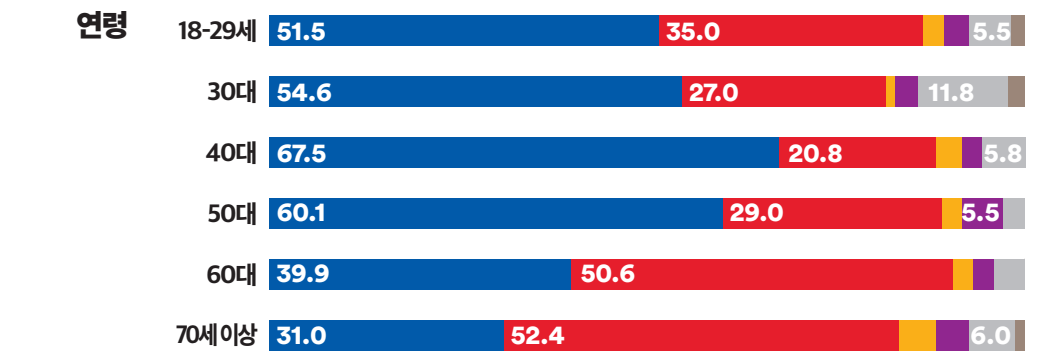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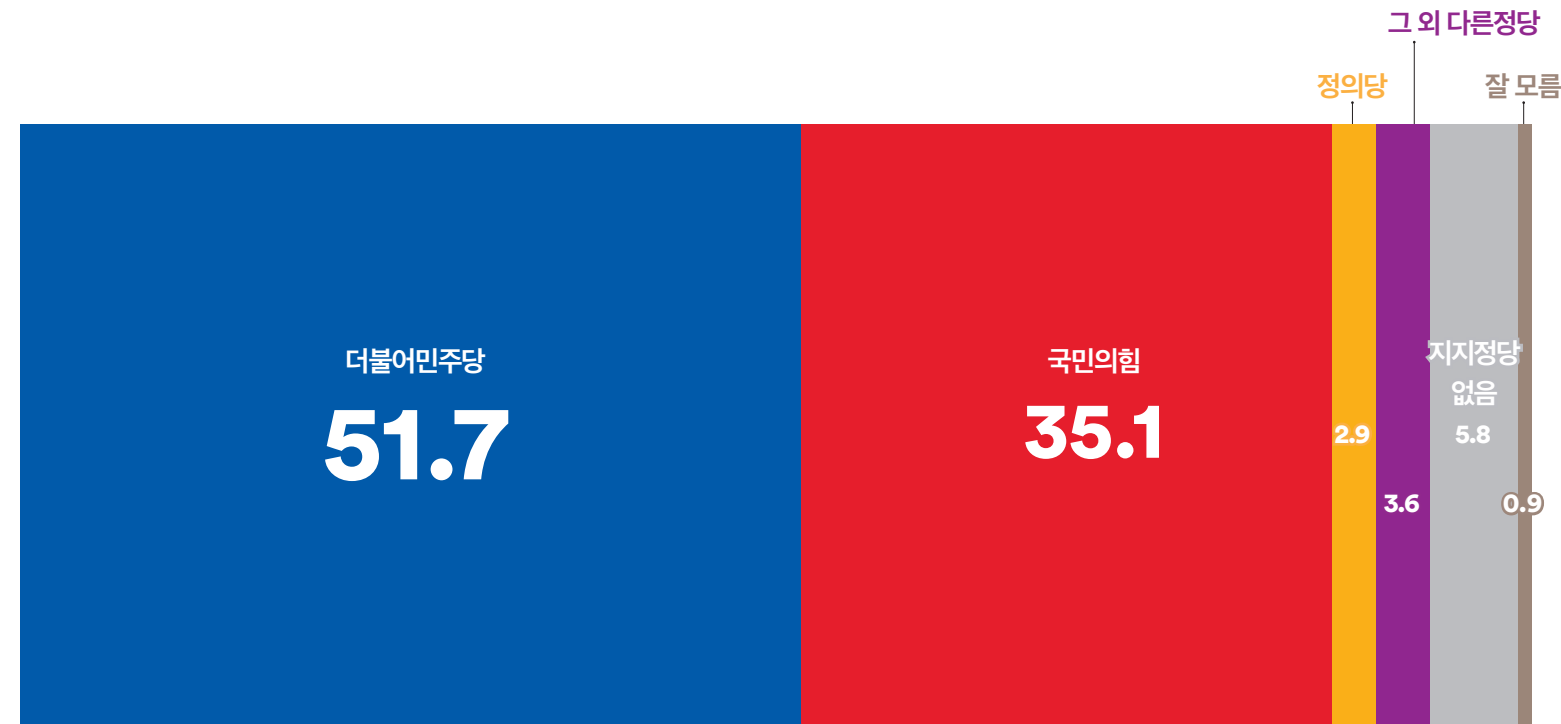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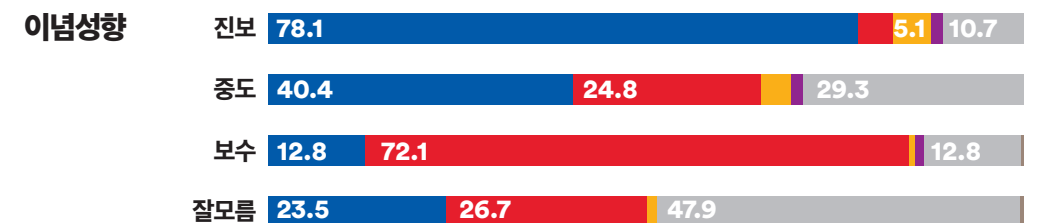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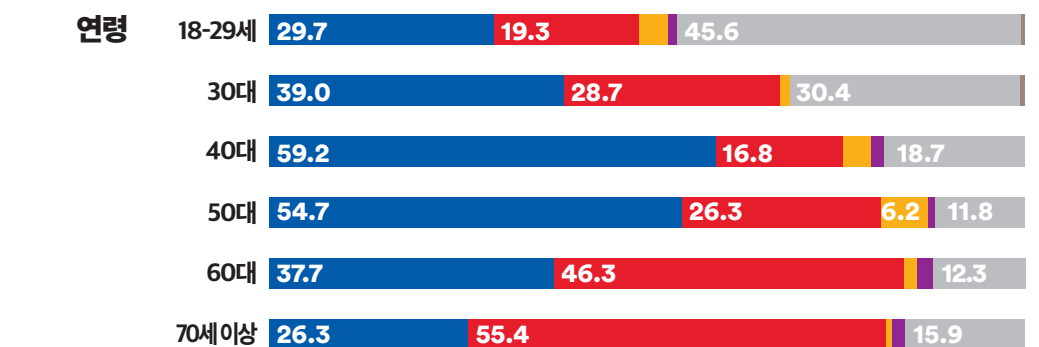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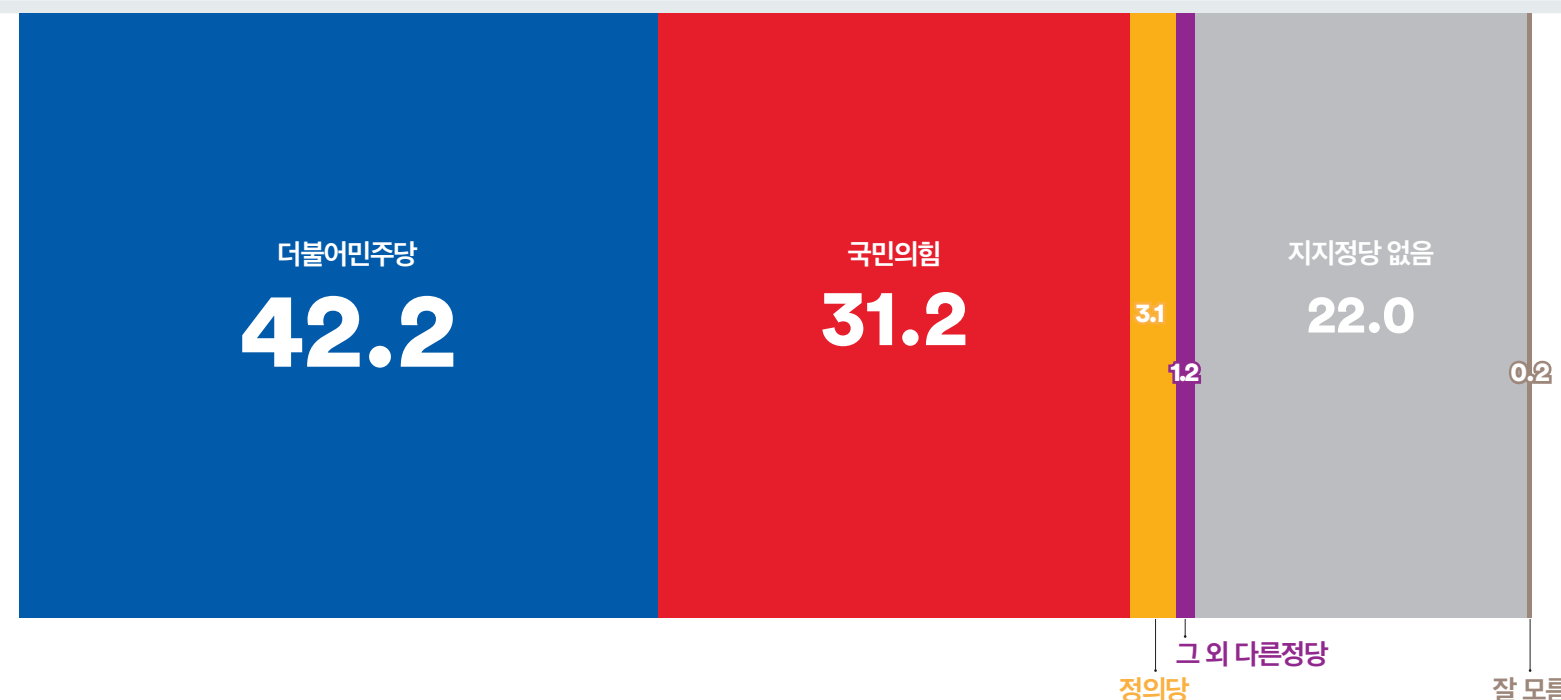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2%p 상승, 국민의힘 2.2%p 하락(격차 16.2%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1%p 하락, 국민의힘 0.7%p 하락(격차 11.0%p)

남·녀 모두, 수도권·호남권, 40·50대 (ARS는 30대, PK지역 포함) 더불어민주당 우세, TK지역,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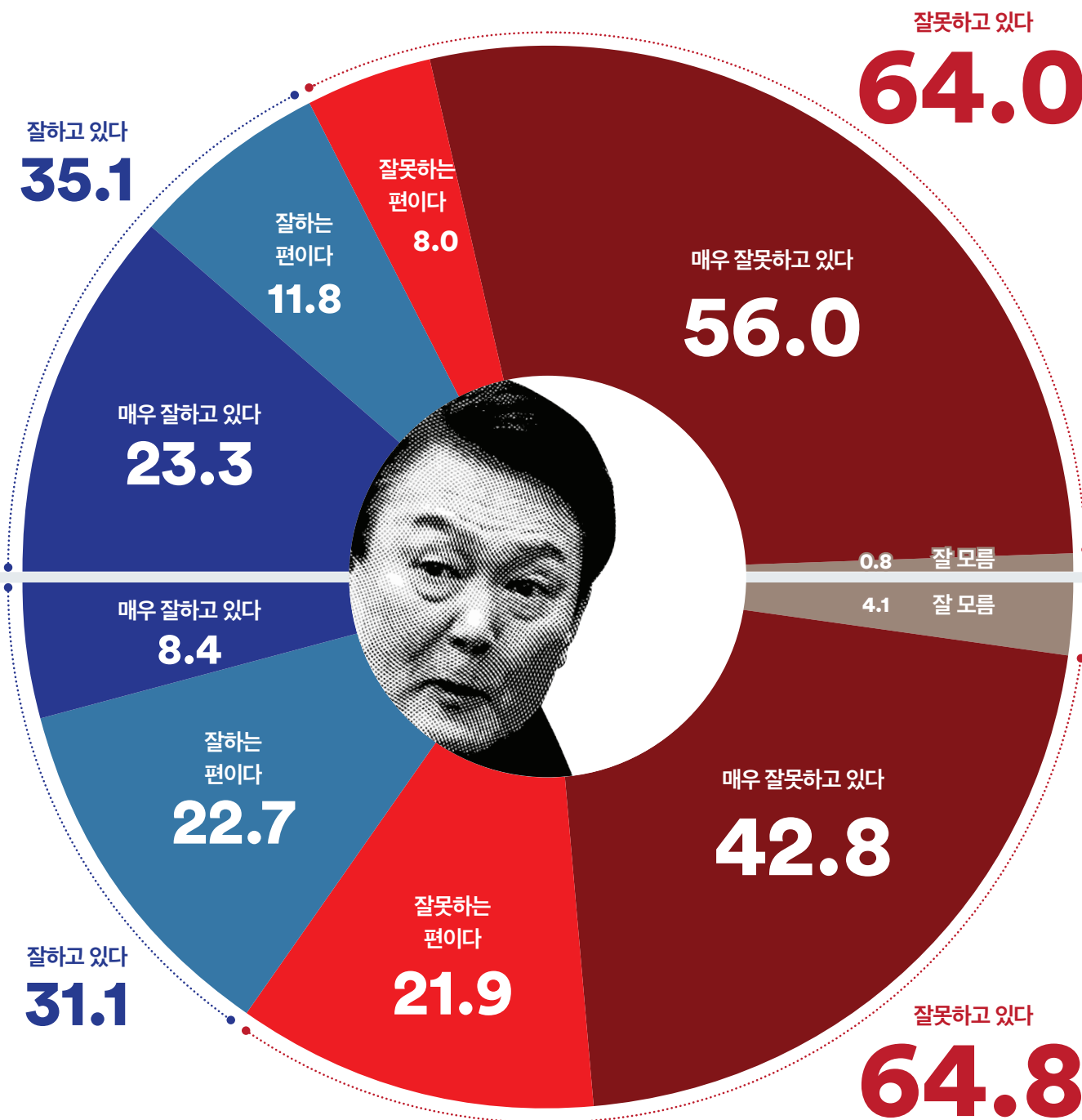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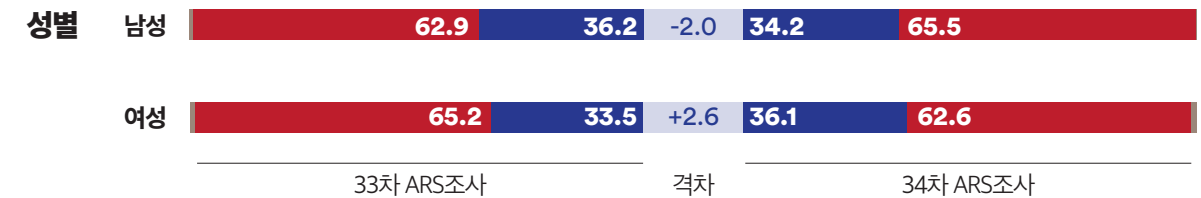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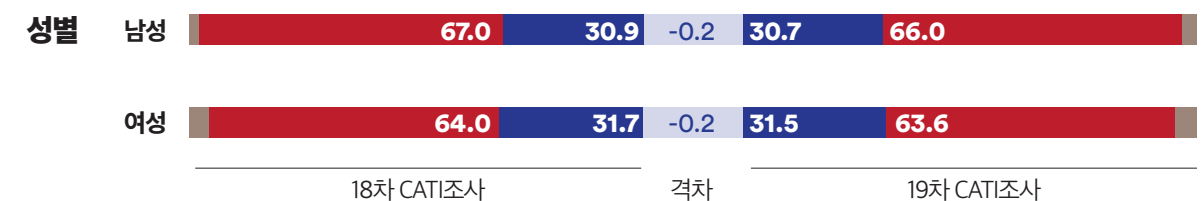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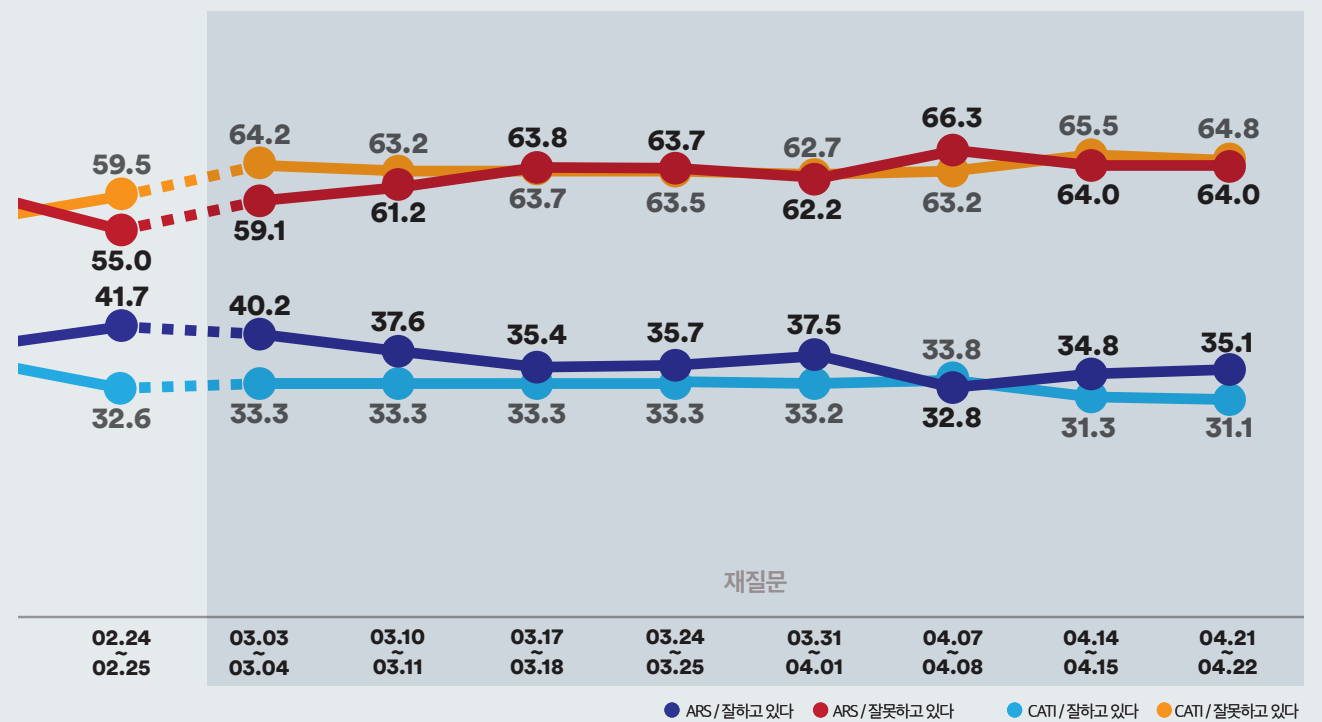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0.3%p 상승 (격차 28.9%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2%p 하락, 부정평가 0.7%p 하락 (격차 33.7%p)
 남·녀 모두, 50대이하 응답층,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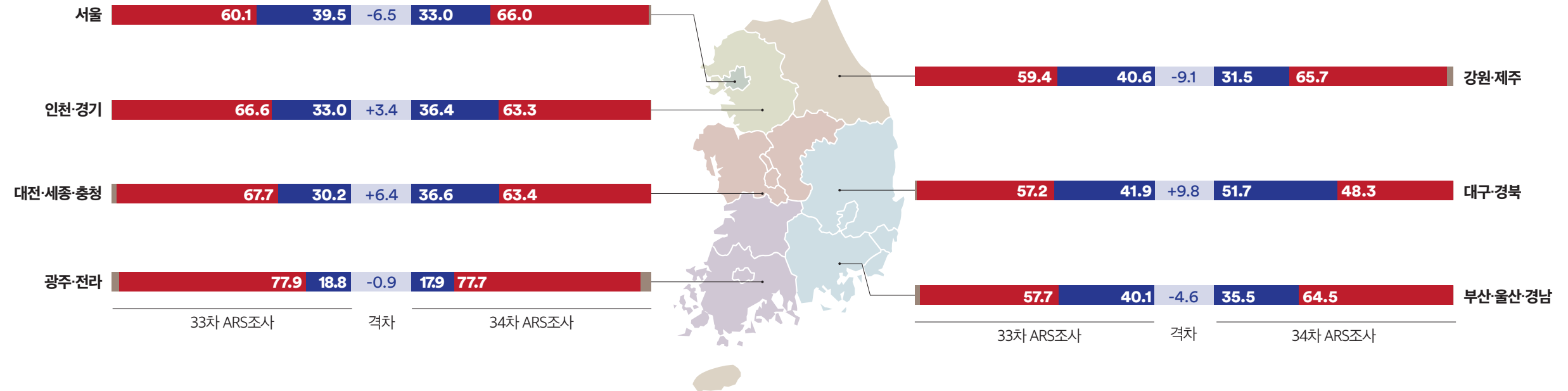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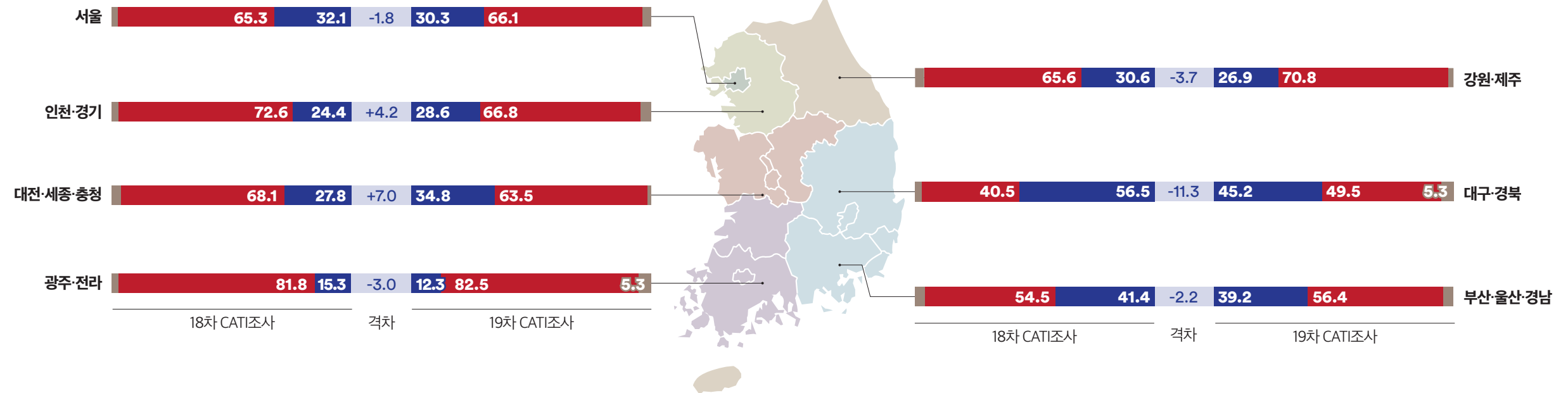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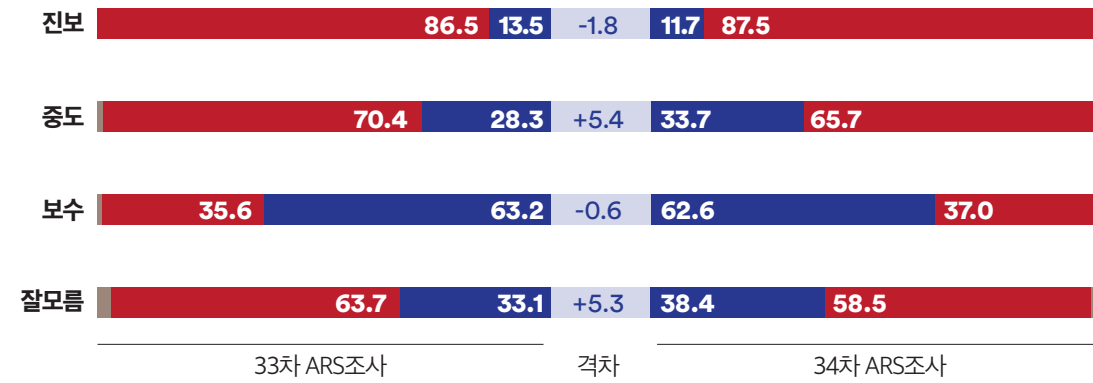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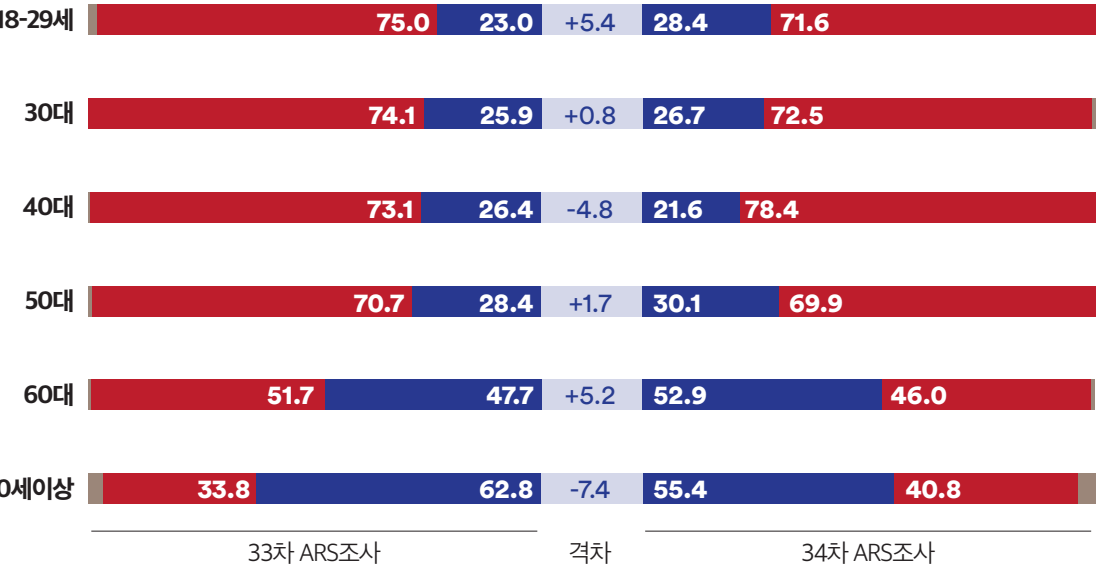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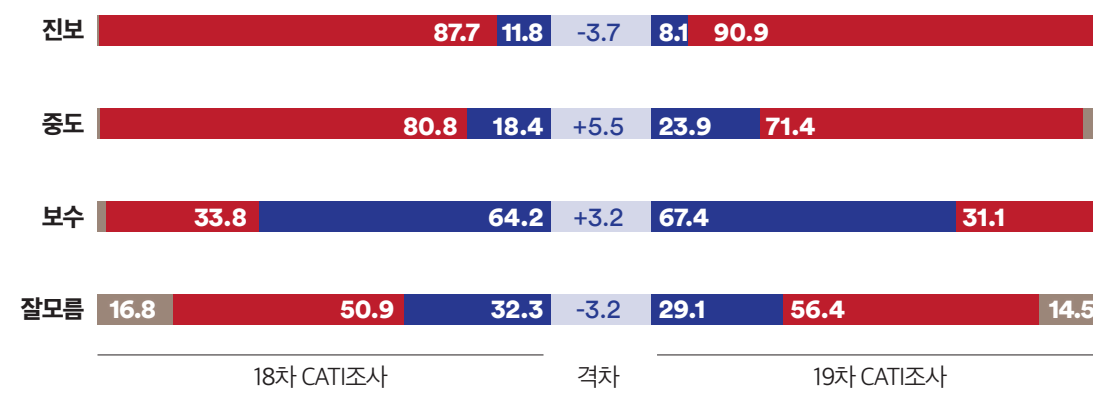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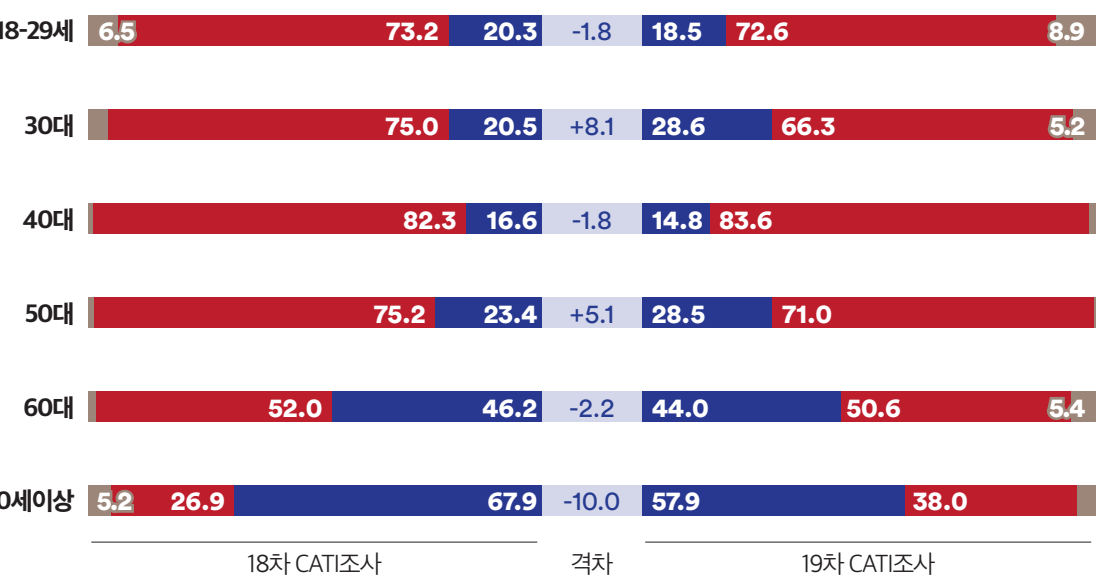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3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윤대통령의 인터뷰, 외교 방향성

ARS & CATI / CATI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 찬반

적대국 간주시 우려되는 한국 피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

중국·대만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대만 유사시 대한민국 국군 파병 찬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무력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중국·대만 갈등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인터뷰 내용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우리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적절했는지 묻고,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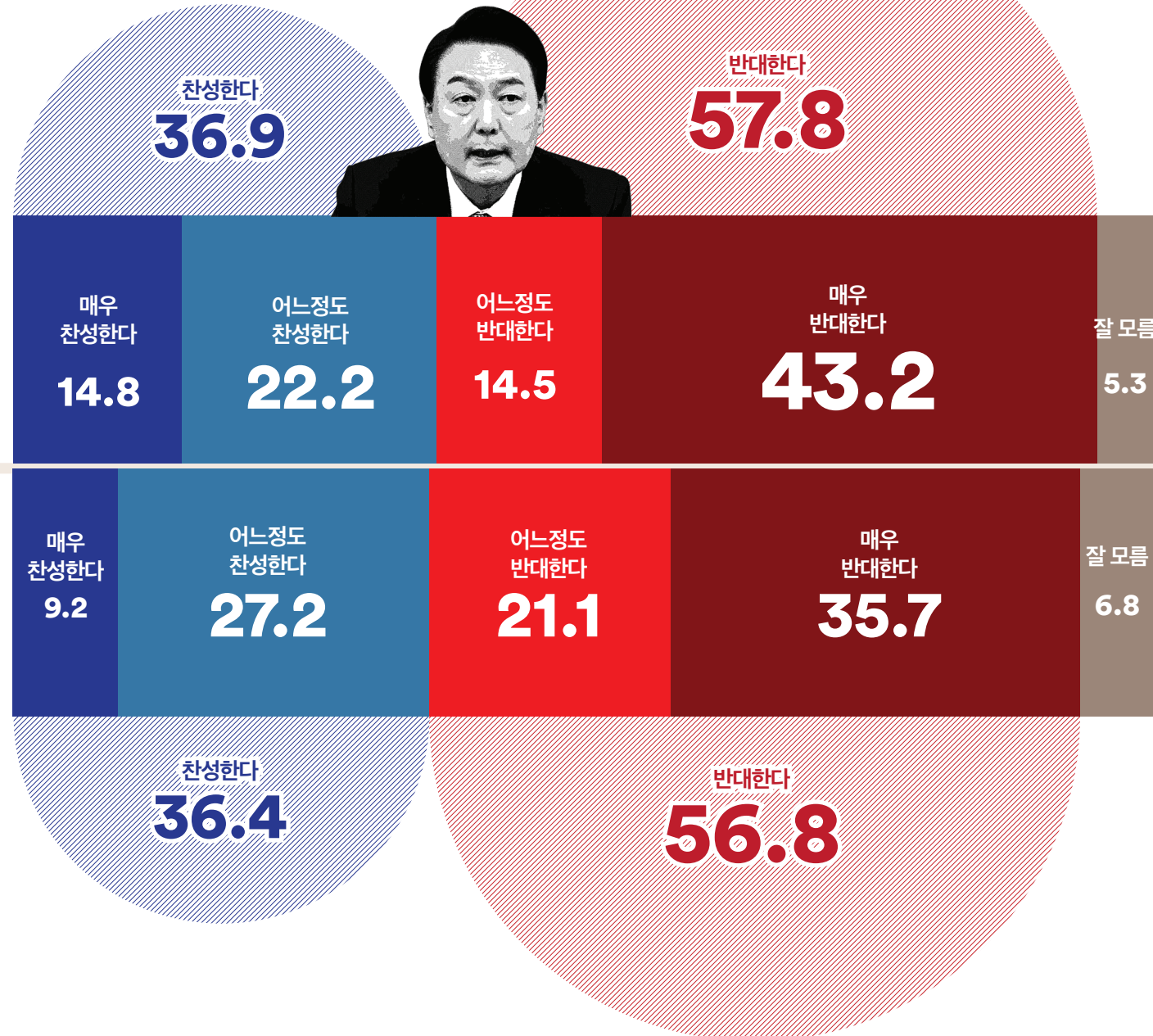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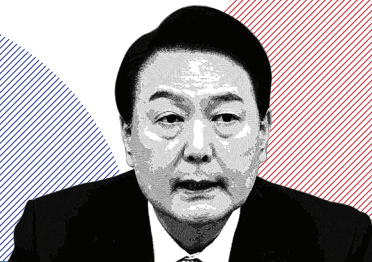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지원

Q. 윤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전쟁에 개입한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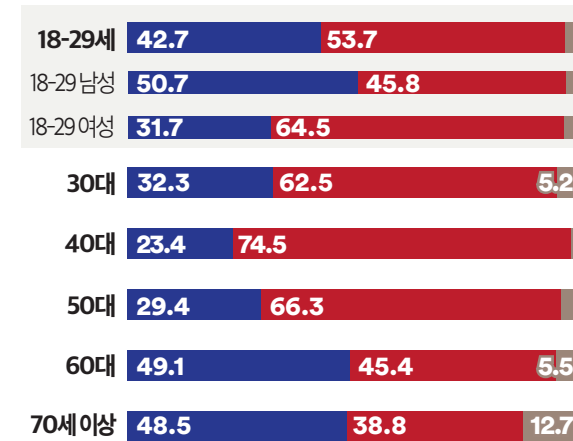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4월 19일 공개된 로이터와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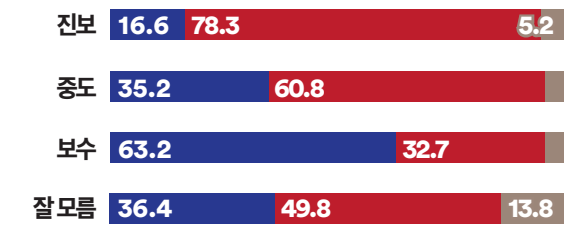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5명 이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직접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 우세
두 조사 모두 모든 권역과 성별에서 '반대' 응답이 높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중도층은 '반대',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은 '찬성'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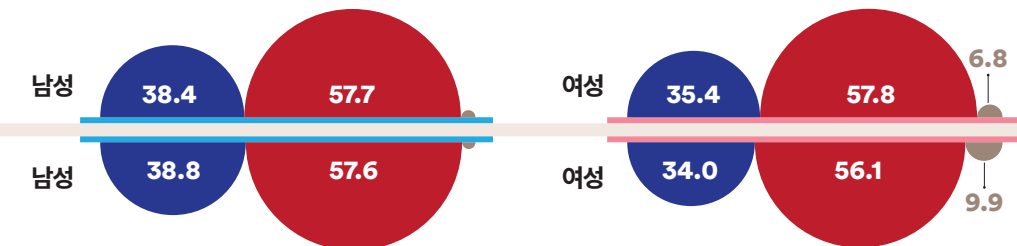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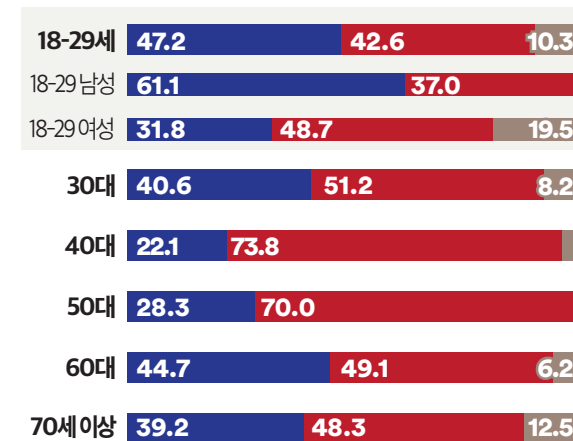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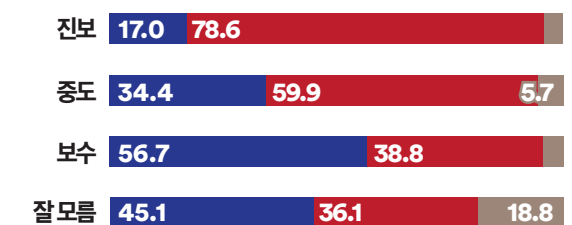
성별



연령



이념성향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적대국 간주시 우려되는 한국 피해

Q. 러시아가 한국을 전쟁에 개입한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피해는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

[러시아 외무부]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

[러시아 대통령실]

러시아의
북한 군사 무기
지원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감 고조

29.7

현지 진출 기업 퇴출,
교역 중단 등
경제적 피해

26.1

원유, 가스 수입 봉쇄로
에너지 위기

21.6

현지 교민,
유학생
강제 출국 등
민간 피해

9.2

피해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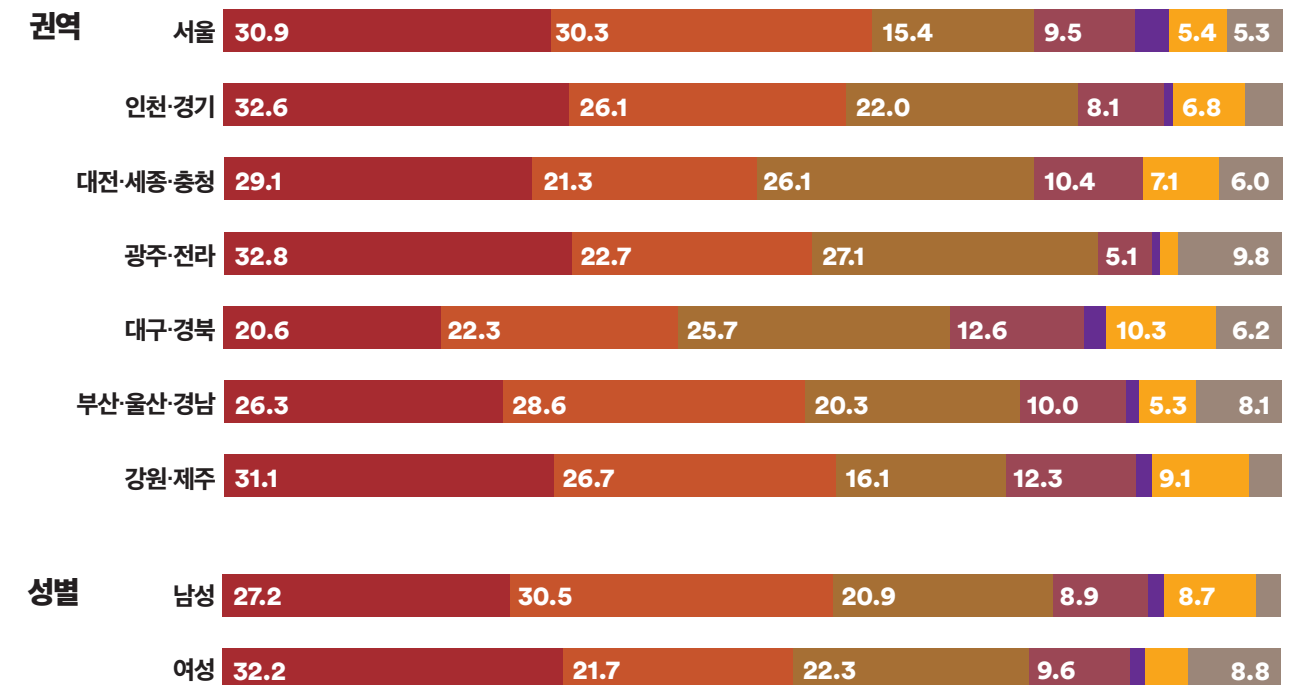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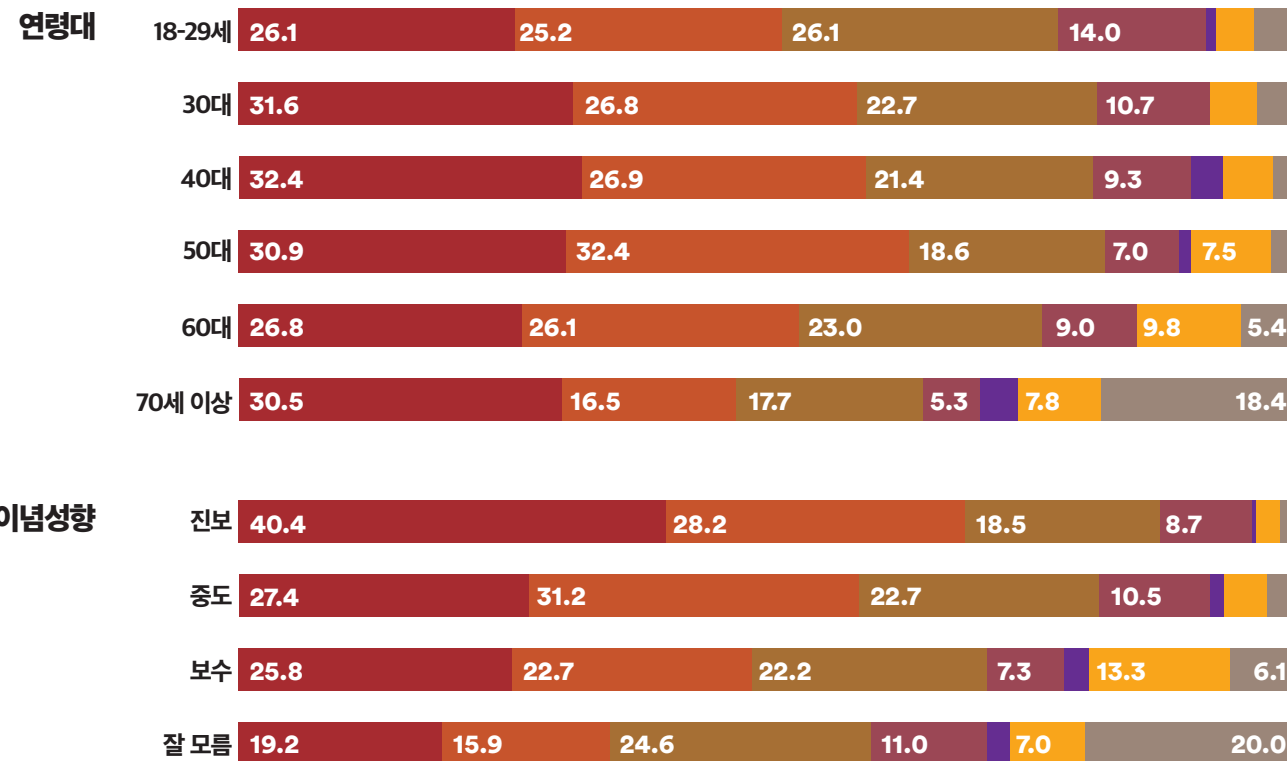
그 외
다른 피해

1.4

6.3

잘 모름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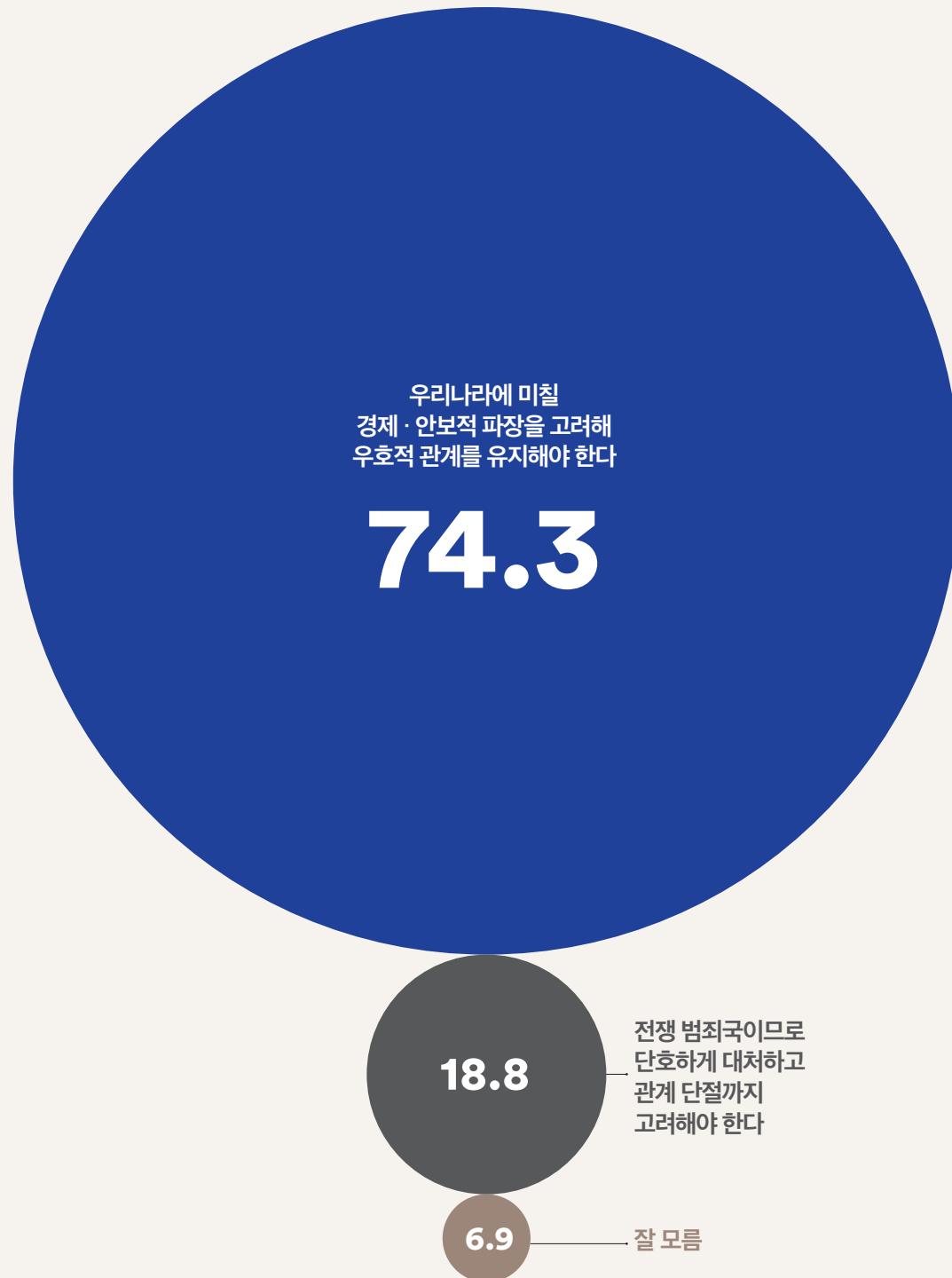
한반도 긴장감 고조 경제적 피해 에너지 위기 민간 피해 그 외 다른 피해 피해 없을 것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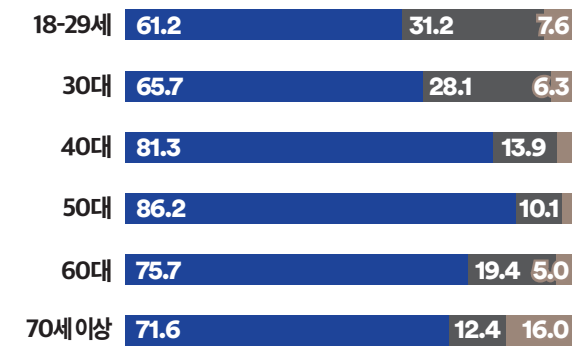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

Q. 향후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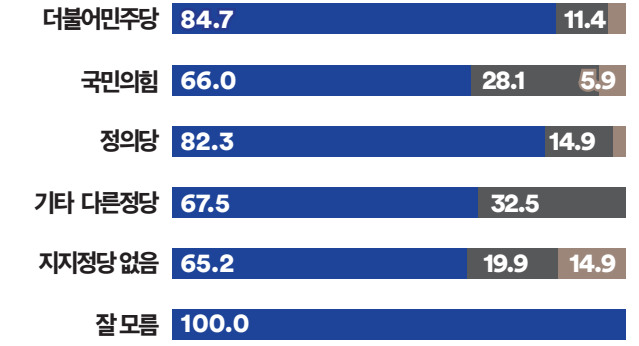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안보적 파장을 고려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
지난 16차 CATI조사에서 '중국과의 외교방향을 협력적인 관계로 바꿔야 한다(71.5%)'는 의견과 더불어
여러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 상식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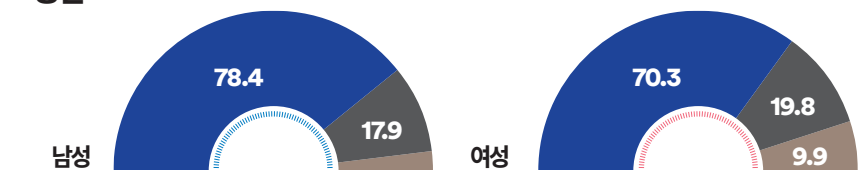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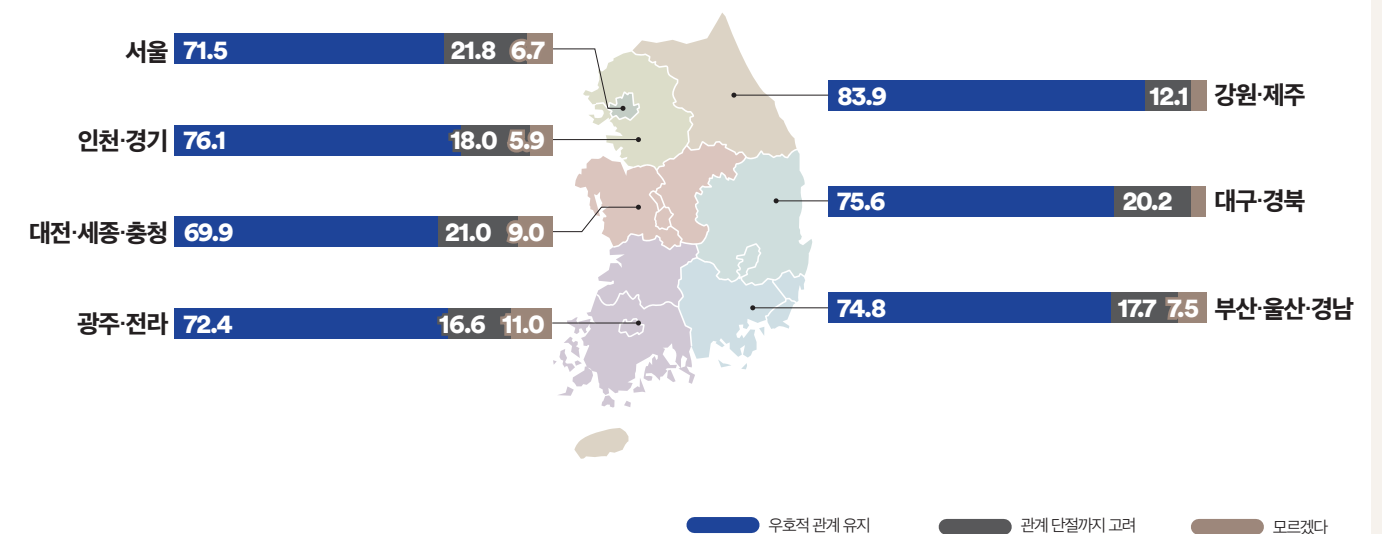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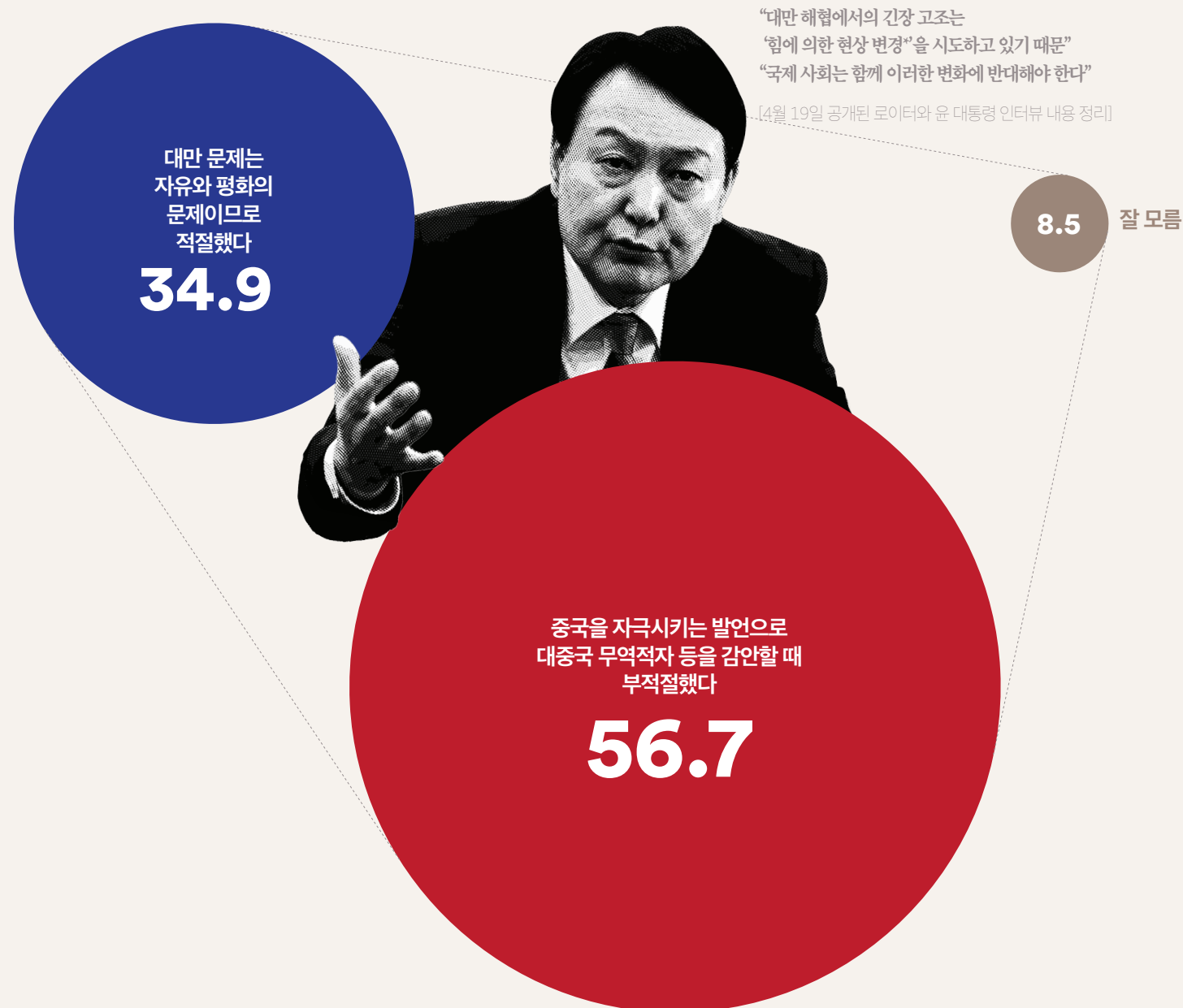
권역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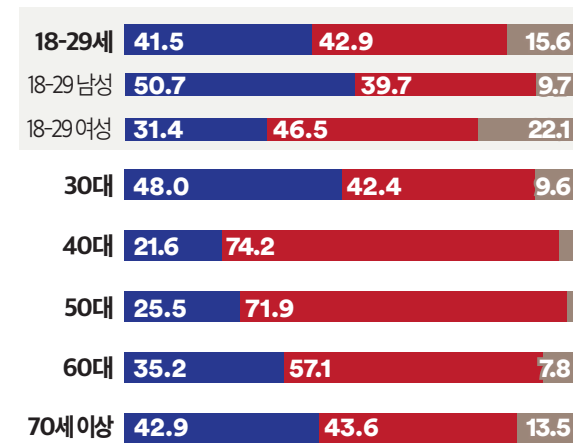
중국·대만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Q. 앞서 말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중국 비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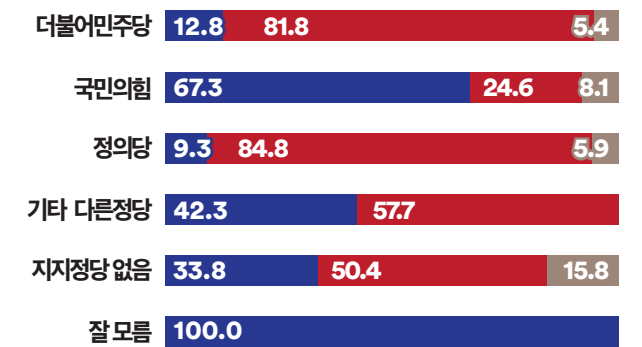


10명 중 5명 이상은 ‘중국을 자극시키는 발언으로 대중국 무역적자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했다’고 응답
40~60대 연령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적절했다’는 응답 우세
무당층(적절 33.8% / 부적절 50.4%)과 중도층(적절 34.4% / 부적절 58.4%)은 ‘부적절’ 응답 우세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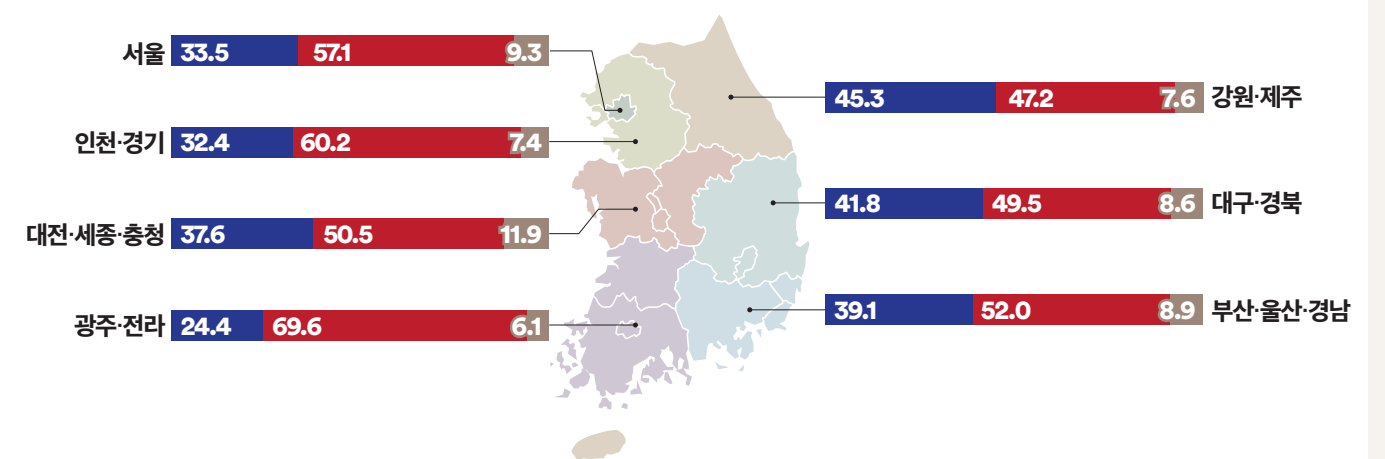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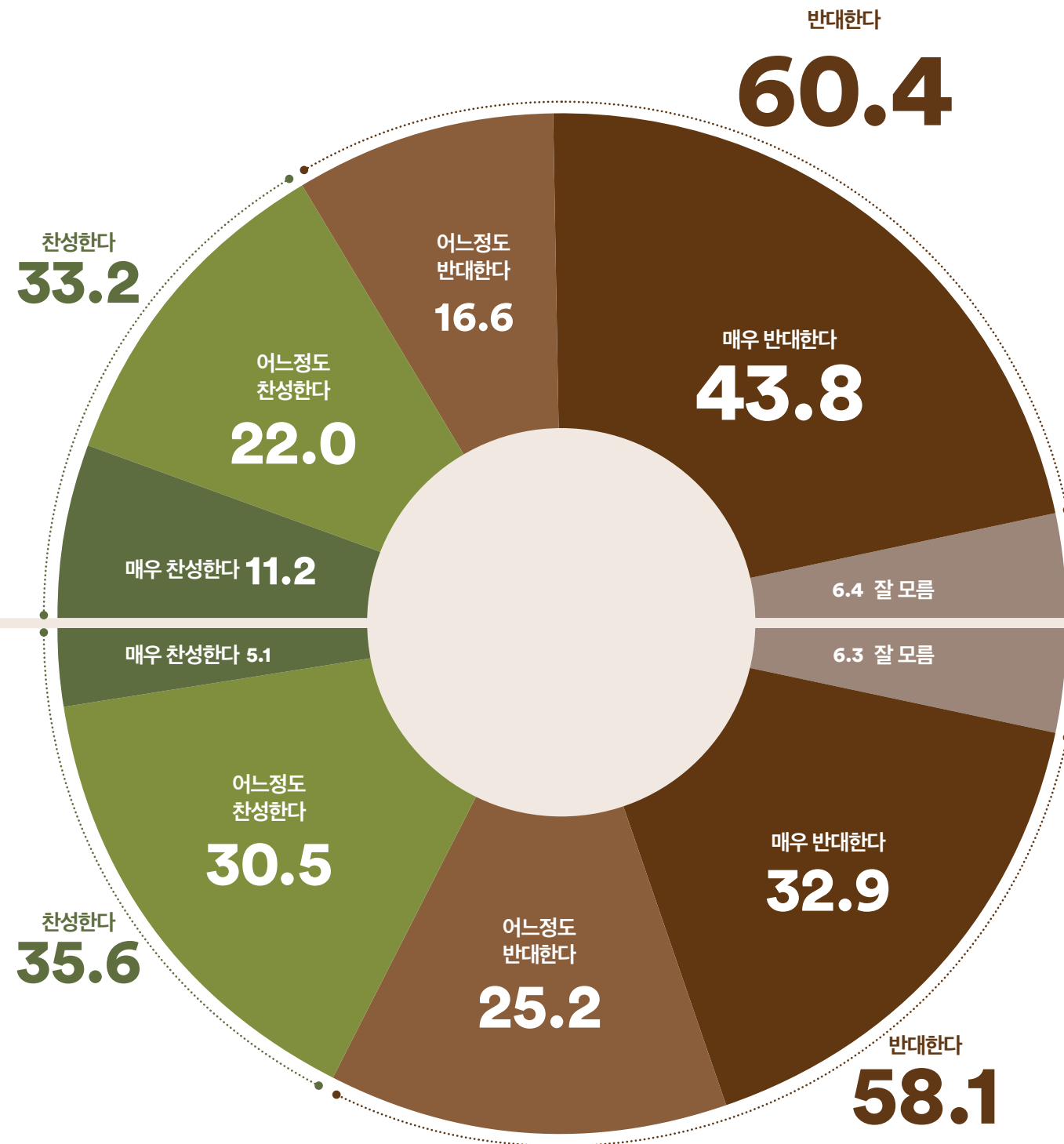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대만 유사시 대한민국 국군 파병 찬반

Q. 미국은 대만 유사시 대한민국 국군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우리 군의 대만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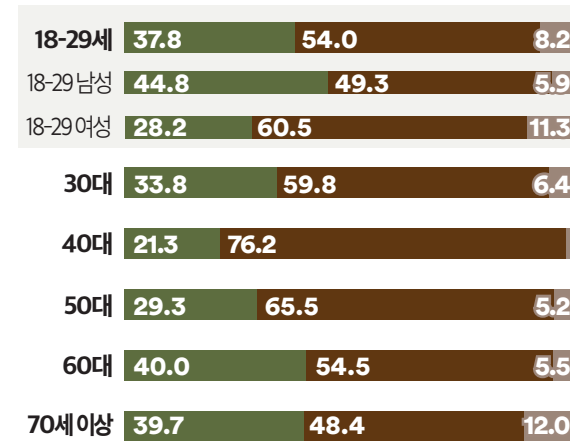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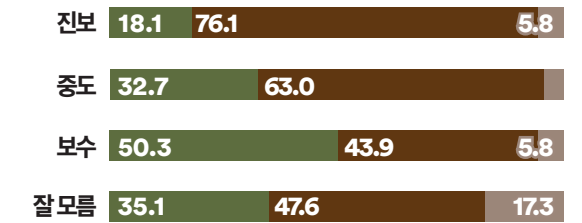


두 조사에서 모두 10명 중 6명 정도는 대만 파병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우세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중도층, 40·50·60대(ARS 30대 포함)에서는 '반대', 70세 이상,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우세
CATI조사의 18-29세 남성의 찬성(57.1%)응답이 연령대 by 성별에서 가장 높은 수치(ARS는 44.8%, 70대 이상 남성에게 이어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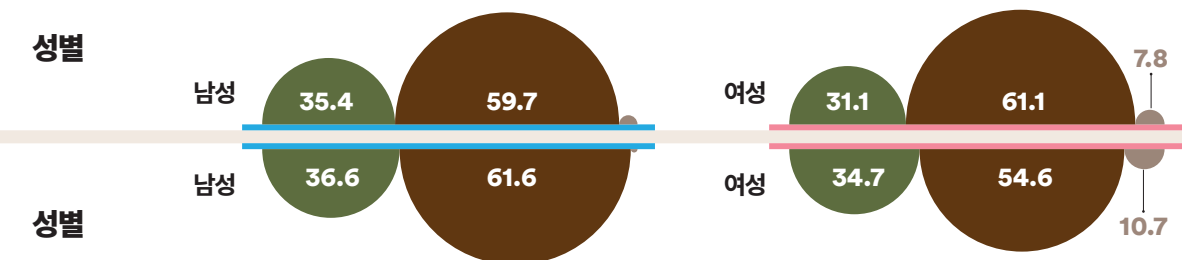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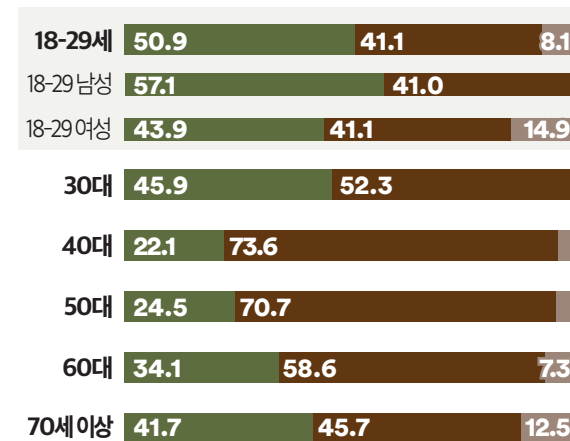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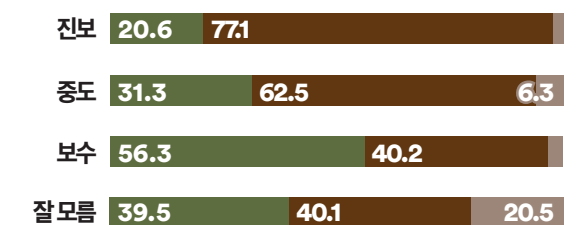
성별



연령



이념성향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3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국내 이슈

ARS & CATI / CATI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파트너 자격

정부의 국면 전환을 위한 야당 수사 주장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 관계 단절 가능성

금태섭·김종인 신당 기대감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당부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포렌식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 묘한 시기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22대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가 옆에서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칭 ‘금태섭·김종인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묻고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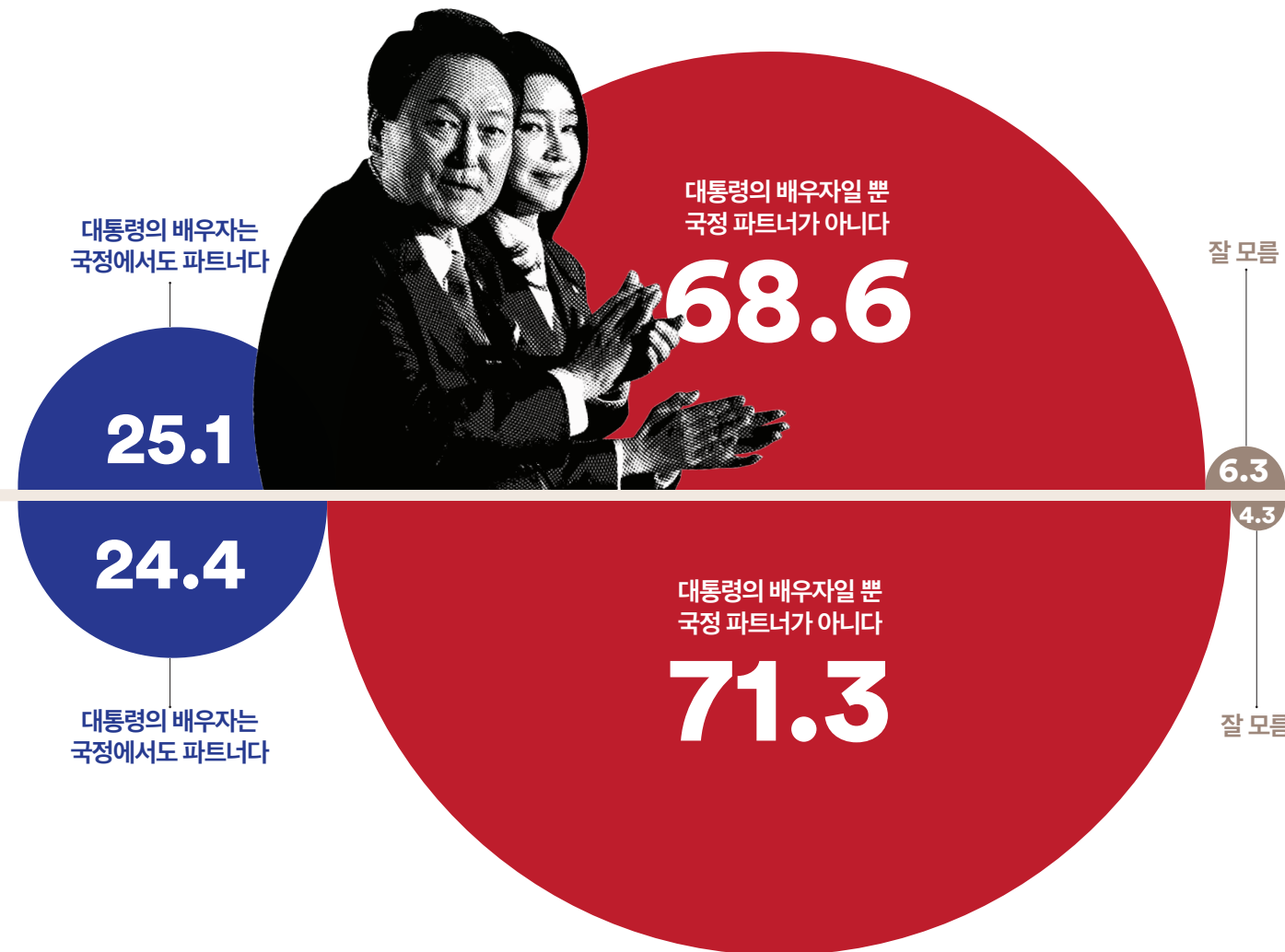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파트너 자격

Q.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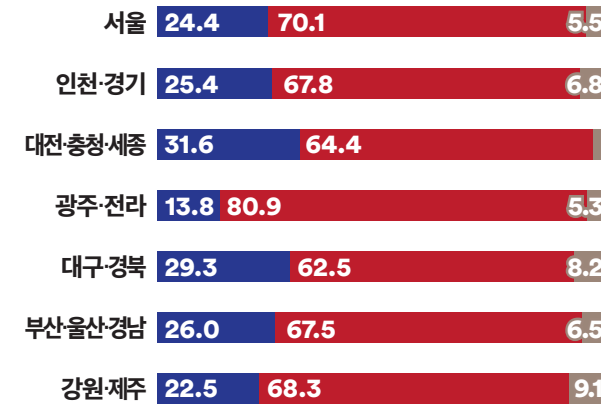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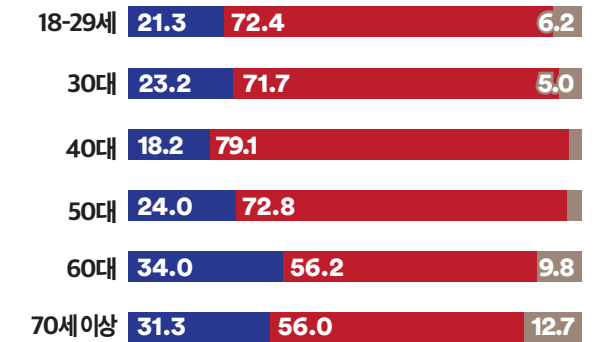


10명 중 7명(ARS는 7명 정도)은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고 응답
‘국정 파트너’란 응답은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더 낮게 나타남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정 파트너’라는 응답이 우세하지만,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응답 역시 적지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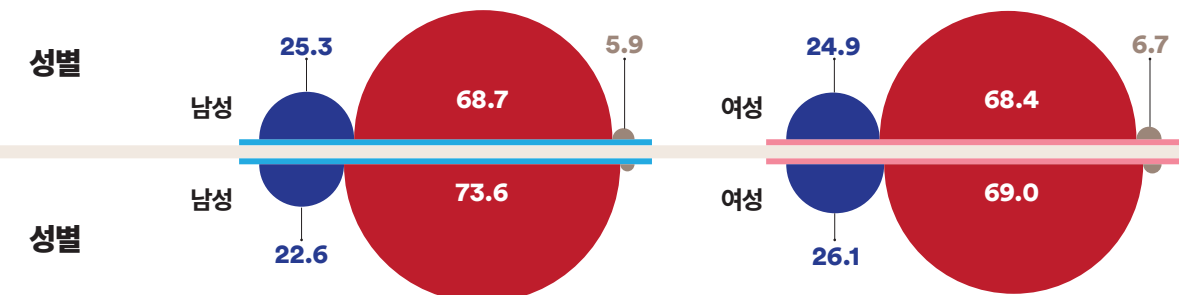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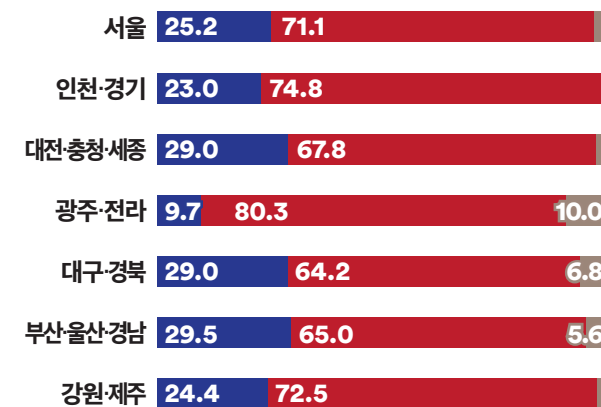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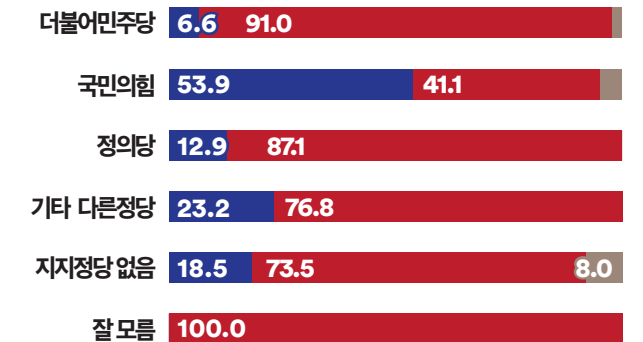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국정파트너가 맞다 국정파트너가 아니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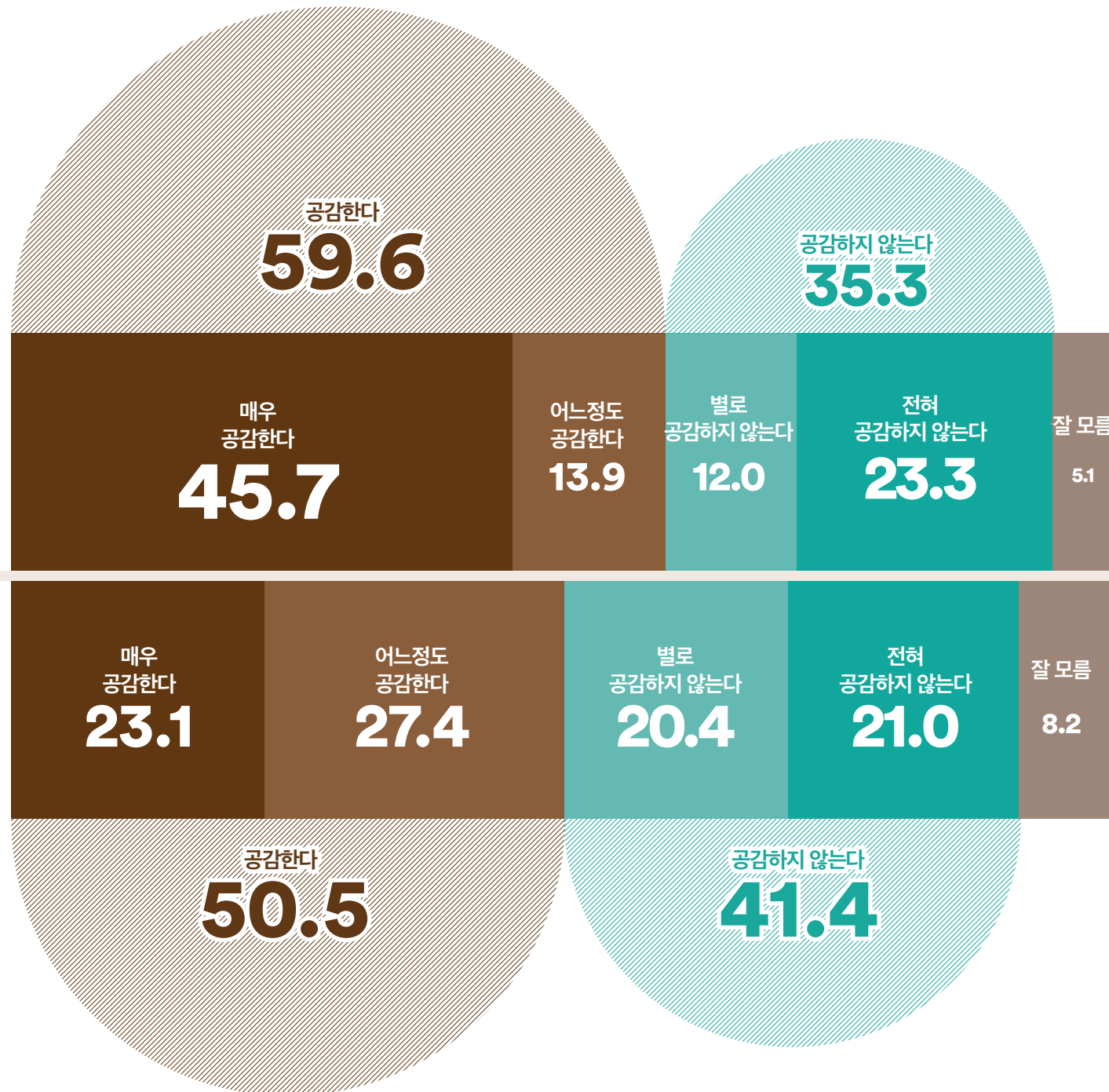
정부의 국면 전환을 위한 야당 수사 주장

Q.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사건 관련해

윤 정부가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면 야당 수사 카드를 꺼내 든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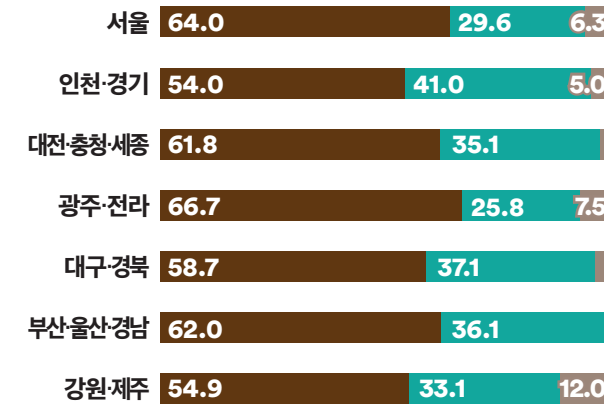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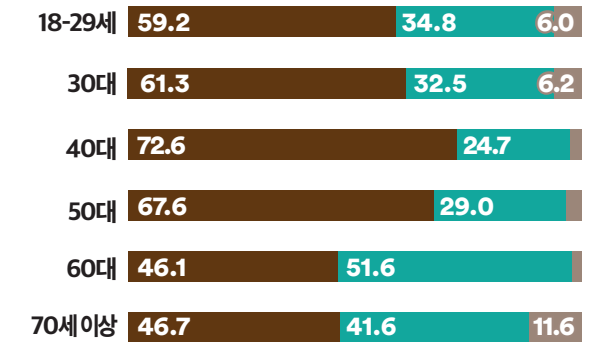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은 '공감한다'는 응답, ARS에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남녀 모두, 18~29세·40~50대(ARS 30대 포함),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공감' 응답이 우세, 무당층은 의견이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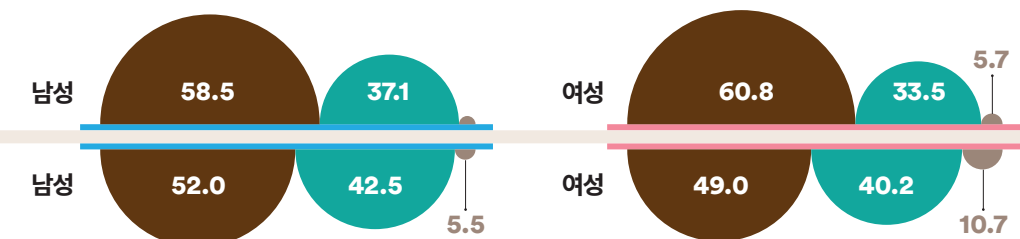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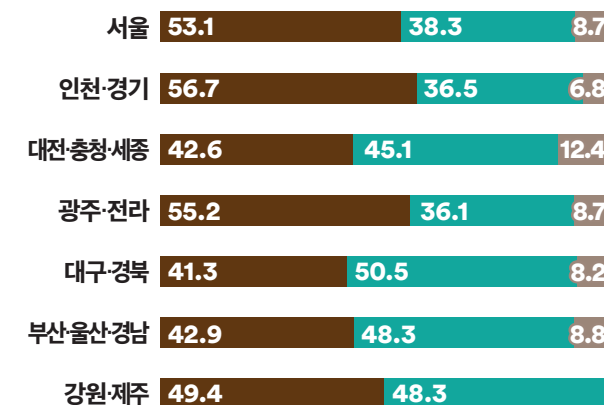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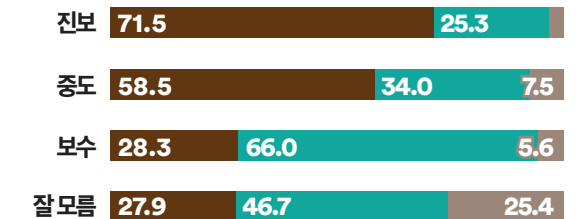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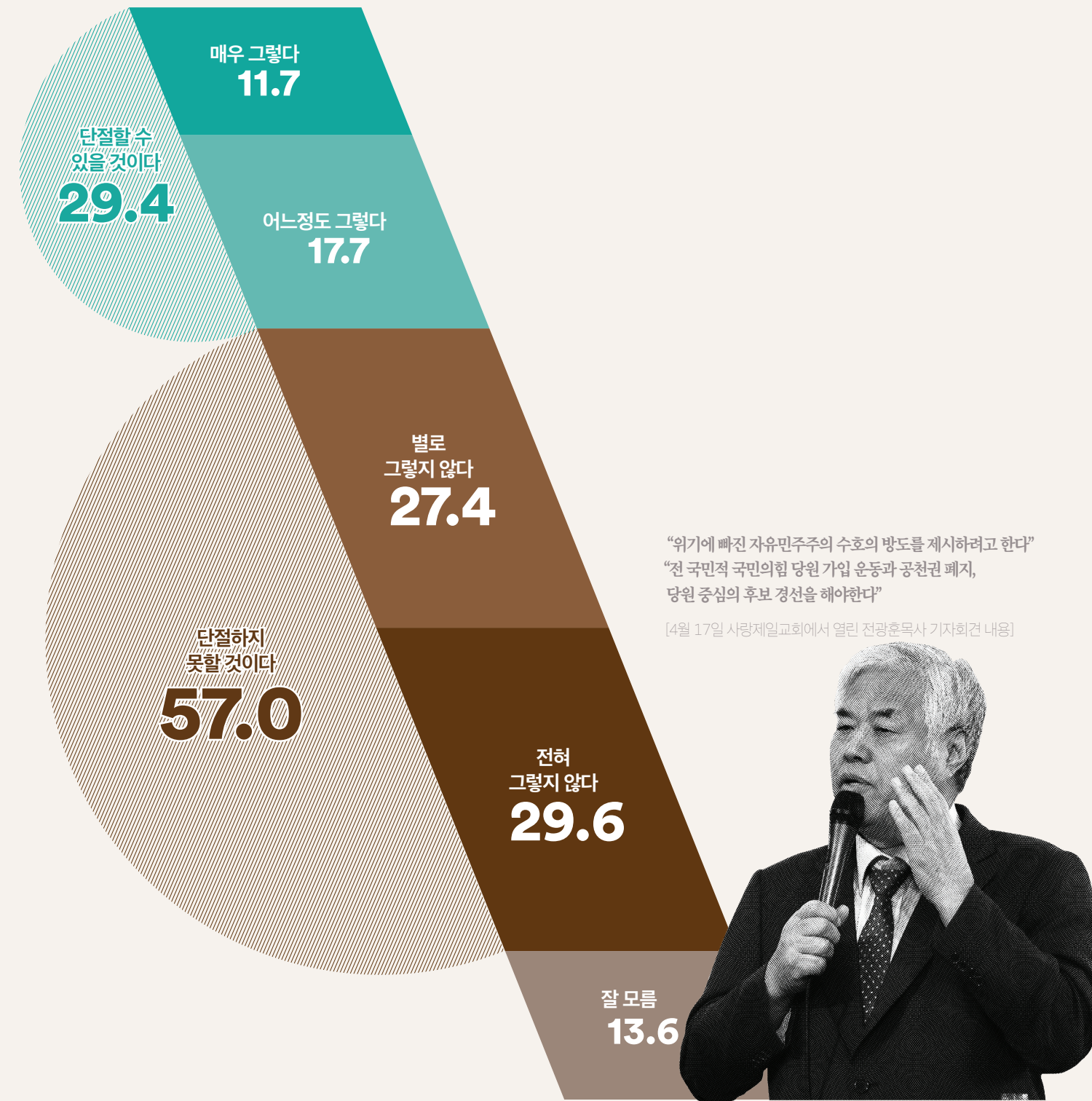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국민의힘과 전광훈목사 관계 단절 가능성

Q.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공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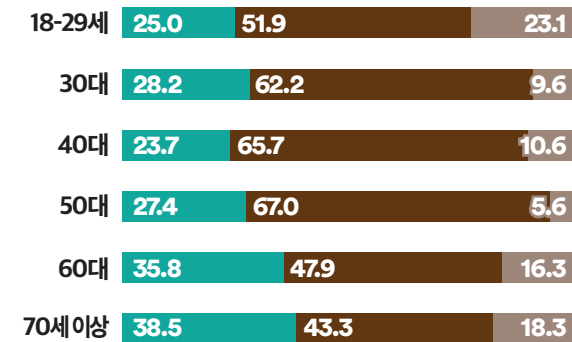


10명 중 5명 이상은 ‘국민의 힘이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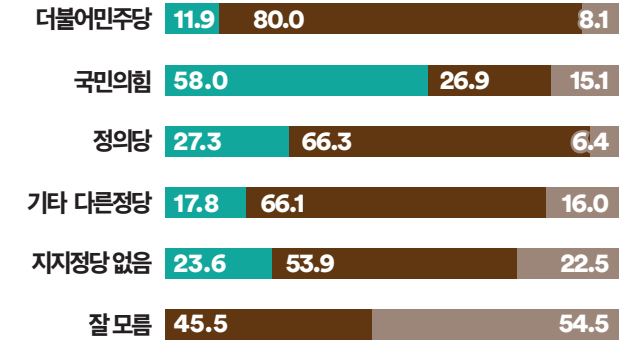
모든 권역, 성별, 연령에서 ‘단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앞섬

무당층(그렇다 23.6% / 그렇지 않다 53.9%), 중도층(그렇다 28.7% / 그렇지 않다 59.8%)에서도 ‘단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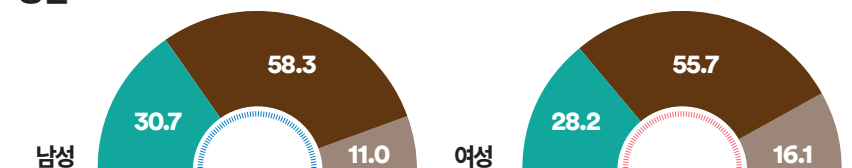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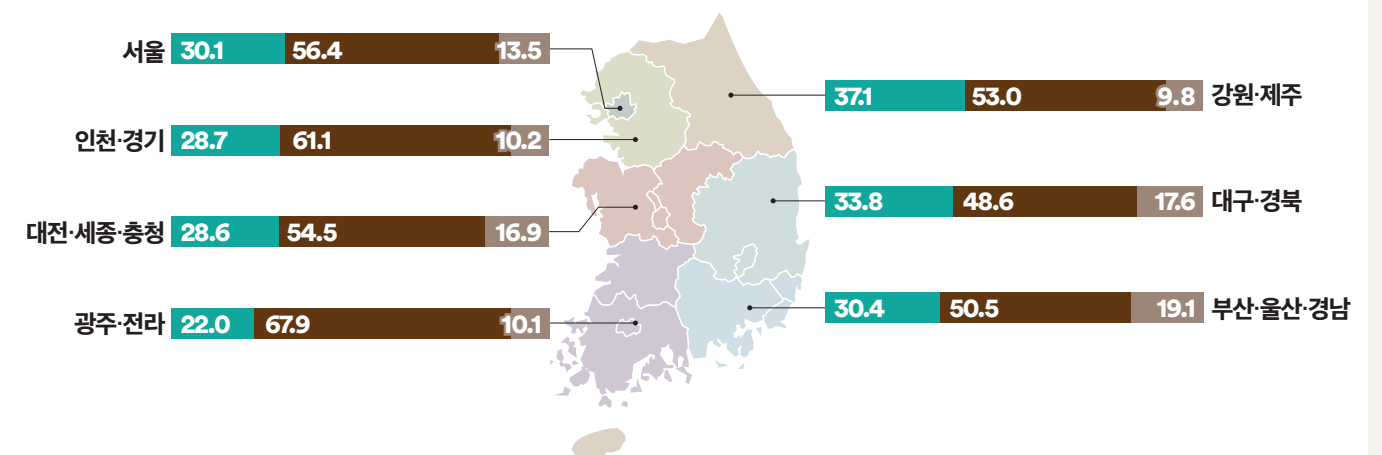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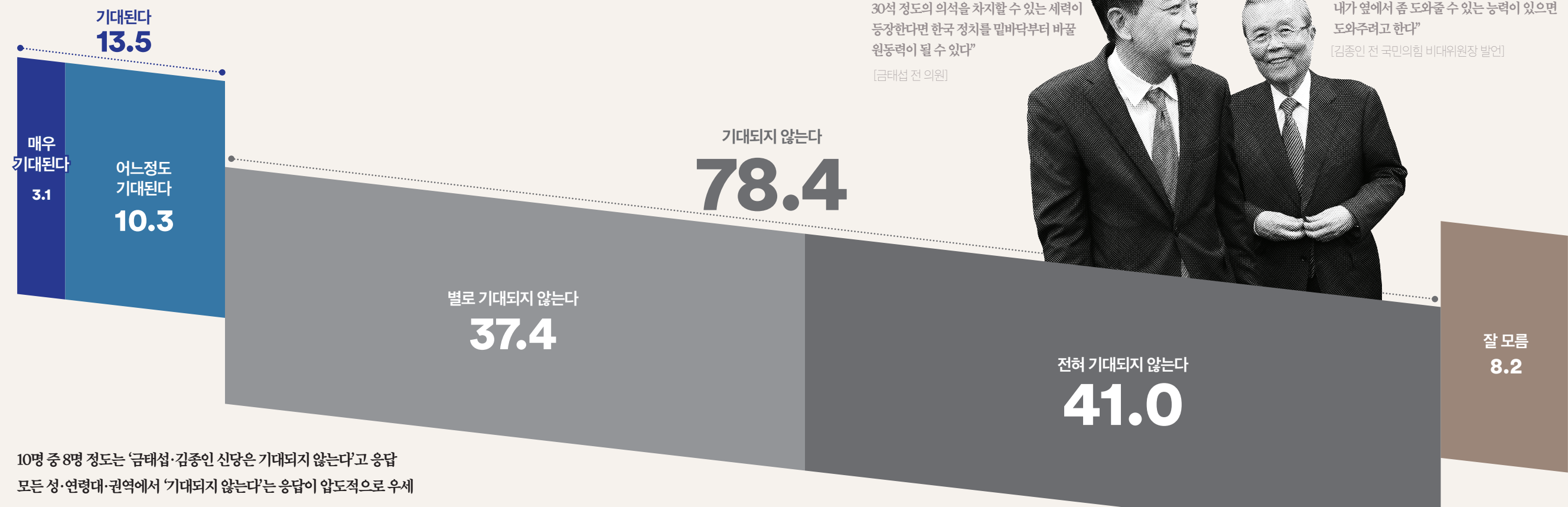


단절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절하지 못할 것이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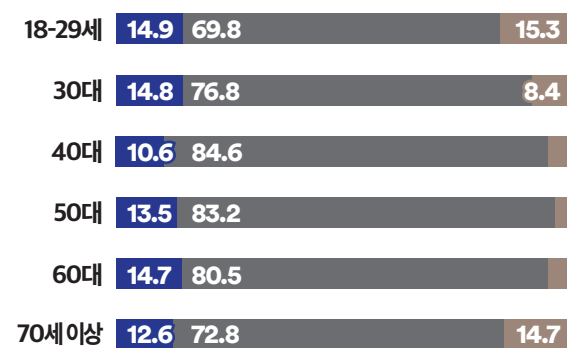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금태섭·김종인 신당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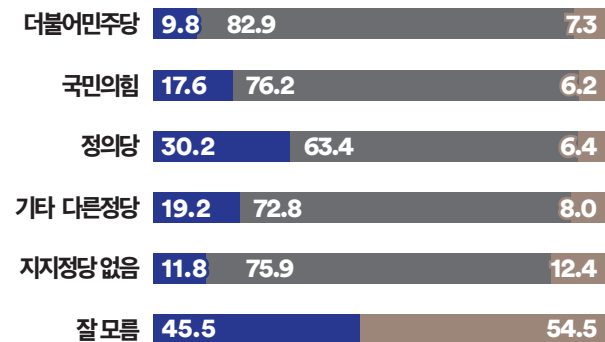
Q.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자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창당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칭 ‘금태섭·김종인 신당’에 대해 얼마나 기대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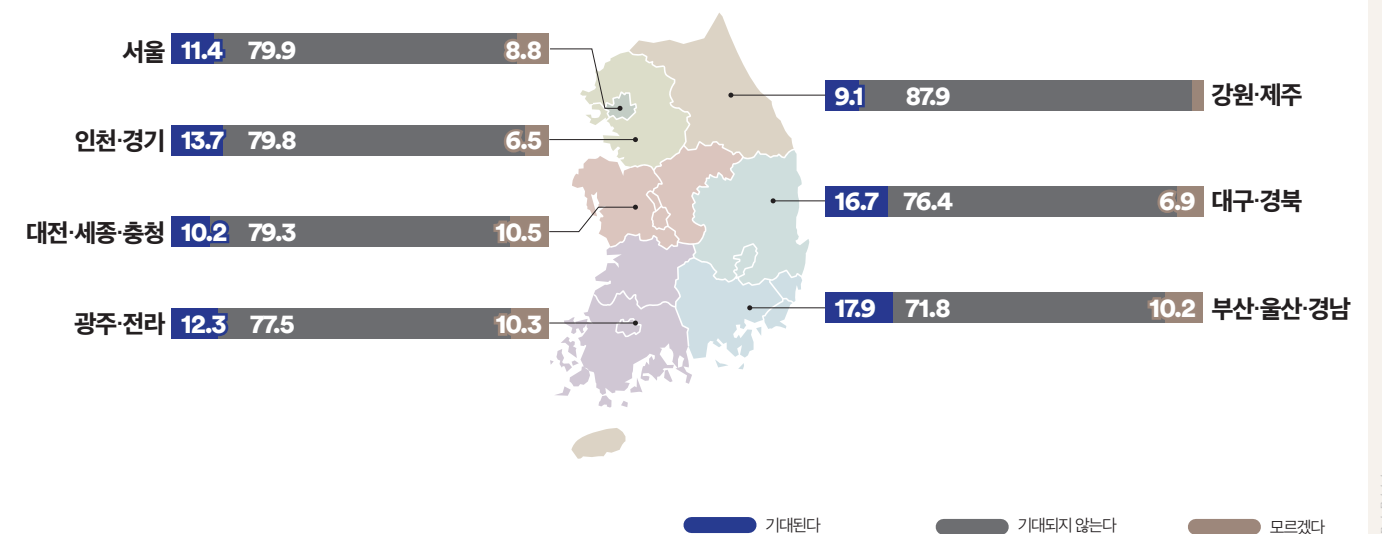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



REPORT #202304_04

여론조사꽃 제3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